

전후 『애국독본』의 헤게모니 전략과 문화정치*

박 형 준**

차 례

- | | |
|--|-----------------------------------|
| 1. 독본, 애국(愛國)하는 주체의 훈육 형식 | 4. 애국=구국의 마음: '희생'하는 주체와 관변 이데올로기 |
| 2. 중·고등용 『애국독본』의 변증: 애국담론의 지식화와 정당화 장치 | 5. 독본의 문화정치: 애국하는 마음, 포섭되는 국민 |
| 3. 애국=타자의 인식: '재건'되는 주체와 냉전 이데올로기 | |

국문초록

이 논문은 전후(戰後)에 발간된 『애국독본』을 실증하고 분석함으로써, 중등학교 애국교육 교재의 헤게모니 전략을 고찰한 연구이다. 『애국독본』은 중등용과 고등용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은이는 한국교육문화협회이다. 전후 사회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애국교육'은 중요한 국가 이데올로기 전수 수단이 되었다. 이 논고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애국

* 이 논문은 2019년도 부산외국어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 부산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화학부 조교수

독본-중등용』과 『애국독본-고등용』은 단순한 교과용 도서가 아니라, 국가에 속한 개인을 ‘애국(愛國)하는 주체’로 호출하고 육성하는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이다. 문헌 분석 결과, 『애국독본』이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로 기능할 수 있었던 배경은 두 가지로 파악된다. 첫째, “문교부 추천” 교재인 『애국독본』은 제도화된 교육 형식이라는 점이다. 둘째, 자유발행 형식의 『애국독본』이 학교 현장에 광범위하게 보급되었다는 사실이다. 전후 문교시책 중 가장 핵심은 자유민주주의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국가관의 확립과 애국심의 고취이며, 이를 교실 현장에서 실행하는 교재 『애국독본』은 구체적인 헤게모니 장치가 된다. 『애국독본』이 학습자에게 ‘애국하는 마음’을 기입하고 발현하기 위해 사용한 헤게모니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애국독본』은 냉전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학습자와 대중독자를 ‘반일’과 ‘반공’의 주체로 ‘재건’하는 헤게모니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냉전체제의 애국담론은 일본 제국주의와 북한 공산주의를 타자로 발명하며, 이는 지배 이데올로기를 아무런 이의 없이 수용하게 하는 ‘지배적 독서’ 경험을 갖게 한다. 둘째, 『애국독본』은 관변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학습자를 ‘희생’하는 주체로 육성하는 헤게모니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민족/애족 정신’을 담고 있는 역사전기 서사와 논설 텍스트는 사회 재건을 위해 ‘희생’하는 주체를 창안한다. 학습자의 『애국독본』 읽기가 전복적 성격을 상실한 ‘타협적 독서’에 그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이와 같이 중·고등용 『애국독본』은 지배 이데올로기에 순응하고 순종하는 ‘애국적 주체’를 만들기 위한 전후 사회의 헤게모니 장치이며, 이는 순수한 교육 활동이 아니라 문화정치적 한 수단임을 확인할 수 있다.

주제어 : 『애국독본』, 헤게모니 전략, 애국교육, 관변 이데올로기, 희생하는 주체

1. 독본, 애국(愛國)하는 주체의 훈육 형식

이 논문은 한국전쟁 이후 발간된 『애국독본』의 실체와 내용을 고증하고 분석함으로써, 중등학교 애국교육 교재의 헤게모니 전략을 고찰한 연구이다. 『애국독본-중등용』과 『애국독본-고등용』은 국가에 속한 개인을 ‘애국(愛國)적 주체’로 호출하고 육성하는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이며, 이 독본에 수록된 역사전기 서사와 비문학 논설 텍스트는 ‘반공/반일’을 위한 ‘자기희생’을 ‘애국’으로 상상/오인하게 하는 헤게모니 장치이다.¹⁾

한국 근현대사에서 ‘한국전쟁’의 경험은 압도적 트라우마를 남겼으며, 자유민주주의 이데올로기에 입각해 대한민국의 사회체계를 구성하는 문화정치적 계기가 되었다. 특히, 전후(戰後) 사회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애국교육’은 매우 중요한 국가 이데올로기 전수 수단으로 기능했다. 하지만 전후 반공담론과 반공교육에 대한 논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에 비해,²⁾ 애국담론과 애국교육에 대한 연구는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1) 이 논고에서 분석 텍스트로 삼은 『애국독본-중등용』과 『애국독본-고등용』은 “문교부 추천” 국민사상 교재로, 1955년 3월 우중사에서 발행되었다. 두 책의 서문에는 “통일의 목표로 향하여 험난(險難)한 길을 매진하고 있는 우리들의 정신적 양식”을 위해 “엮은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2장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1950년대에는 ‘애국(愛國)’을 주제로 엮어 놓은 ‘애국독본’을 다수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애국교육 교재 『애국생활』, 애국 시집 『자유의 나무』, 애국역사 기록물 『민족의 수난』 등을 들 수 있다. 이 글에서 애국과 관련된 독본류의 도서를 통칭할 때는 ‘애국독본’으로, 각각의 개별 교재나 도서를 지칭할 때는 『애국독본』과 『애국생활』 등으로, 『애국독본-중등용』과 『애국독본-고등용』을 묶어서 논의할 때는 ‘중·고등용 『애국독본』’으로 적기로 한다.

2) 한국전쟁 전후 독본과 반공교육의 관계를 살핀 연구로는, 박용찬, 「한국전쟁 전후, 현대시의 국어교과서 정전화 과정」, 『한국 현대시의 정전과 매체』, 소명출판, 2011; 이순옥, 「한국전쟁기 전시독본의 형성 기반과 논리」, 『한국문학논총』 58집, 한국문학회, 2011, 423-452쪽; 박형준, 「한국 문학교육의 제도화 과정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이순옥, 「한국전쟁기 문학독본과 문학교육—한국전쟁기 독본 연구 2」, 『한국문학논총』 66집, 한국문학회, 2014, 361-391쪽; 박형준, 「전후 『반공독본』의 헤게모니 전략과 사회문화적 함의」, 『한국문학논총』 79집,

못했다.

기존 연구에서 『애국독본』에 대한 소개와 분석이 전혀 다뤄지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1950년대 반공교육 교재와 독본 연구의 맥락에서 일부 언급된 것이 대부분이다. 『애국독본』을 직접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경우에도 중·고등용 텍스트를 함께 다룬 경우는 거의 없다. 반공교육의 측면에서 ‘중등용’의 내용만 간략하게 제시하거나, 신문 속에 재현된 한국전쟁기 애국담론의 반공주의를 고찰하는 데 필요한 보조 텍스트로 ‘고등용’의 「서문」만을 짧게 다루고 있을 뿐이다.³⁾

『애국독본』은 ‘문교부 추천’ (부)교재로, ‘중등용’과 ‘고등용’ 두 권이 존재하고 있으며, 한국전쟁 직후인 1955년 3월에 발간해 중등학교용 국민사상 교재로 사용되었다. 『애국독본』의 내용과 편찬 전략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고등용의 문헌 비교 작업과 함께 통합적인 제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실제로, 두 교재는 제1차 교육과정(1955년 8월 1일, 문교부령 44, 45, 46호) 시행 전후 자유발행 형식으로 출판되어 중등학교 애국교육 부독본(혹은 부교재)으로 활용되어 온 사실이 확인된

한국문학회, 2018, 457-484쪽 등을 참고할 수 있다.

3) 자유발행 형식의 부교재인 『애국독본』은 한국의 교과서 변천사에서도 거의 언급된 바 없다(이종국, 『한국의 교과서 변천사』,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8, 184-185쪽). 『애국독본』을 직접 다룬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먼저 「1950년대 반공 교과서의 서술전략 연구—『반공독본』과 『애국독본』을 중심으로」는 『애국독본-중등용』을 일부 다루고 있으나 1950년대 반공교육의 측면에서 “민족의식화 전략”을 분석하는 데 그쳐 아쉬움을 준다. 「한국전쟁기 애국담론과 감성정치」에서는 신문을 통해 “한국전쟁기 전후 애국담론의 변화상을 비교”하고 있는데, 『애국독본-고등용』의 「서문」 정도만 해제하고 있다. 둘 다 『애국독본』의 ‘애국 이데올로기’가 ‘반공 이데올로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애국독본』 중·고등용을 일관된 시각에서 분석하고 있지 않으며 ‘애국=반공’의 프레임을 구성하는 체계모니 전략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했다. 박형준·민병욱, 「1950년대 반공교과서의 서술전략 연구—『반공독본』과 『애국독본』을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33집,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9, 269-287쪽; 김봉국, 「한국전쟁기 애국담론과 감성정치」, 『감성연구』 11집,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15, 53-102쪽.

다.⁴⁾

『애국독본』은 단순한 보조 교재가 아니라, 학습자와 일반 대중독자(“학생들과 군경 그리고 일반 대중”, 「서문」)를 ‘애국적 주체’로 호명하는 이데올로기 형식으로 보아야 한다. 루이 알튀세르에 따르면, 교육제도는 “억압적인 국가장치”가 아니라 “승인·제명·선출 등”과 같은 형식을 통해 주체를 “훈육”하는 “이데올로기 국가장치”이다.⁵⁾ 교육체제를 점거하고 개진하는 이데올로기는 당연히 지배 권력의 정치체제를 재생산하는 이데올로기, 다시 말해 관변 이데올로기이다. 『애국독본』에 수록된 역사전기 서사와 비문학 논설 지문은 단순한 읽기 제재가 아니라 국가 이데올로기에 의해 정당화된 ‘진리/문범(文範)’이다. 본문에서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문교부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교육문화협회가 이 교재를 편찬했으며—문교부 추천 반공교재와 애국교재를 다수 출간—, 문교부에서는 이 책을 각급 학교에 확대 보급(“강매”)하고자 했다. 그러나 『애국독본』에 대한 연구는 이렇게 표피적인 접근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독본(讀本)이라는 언술 형식은 제도적으로 정당한 승인 절차를 거쳐 학습자를 애국적 주체로 창안하고 육성하는 ‘헤게모니 전략’⁶⁾을 사용하는 ‘국가장치’였기 때문이다.

4) 뒤에서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애국독본』은 문교부장관이 단장으로 있는 ‘전국 학도호국단’의 정훈 교재로 사용되었다. 「強賣되는 副讀本 경북도내 육천만환」, 『경향신문』, 1955.7.8.

5) 알튀세르는 이데올로기의 물질성과 문화적 작동방식을 설명하면서, 인간 개개인의 의식은 이데올로기에 의해 구성된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억압적 국가장치’와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를 구분하였다. 이데올로기가 작동하는 국가장치 중 대표적인 것이 학교와 종교이며, 억압적 국가장치로는 정부, 행정, 군대, 경찰, 법원, 감옥 등이 있다. 본고에서 사용하는 ‘국가장치’라는 용법은 알튀세르의 이론에 기대고 있는 것임을 밝혀둔다. 루이 알튀세르, 김동수 옮김, 『이데올로기와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 『아미앵에서의 주장』, 솔, 2000, 91쪽.

6) 이 논고에서는 교육제도와 같은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를 실현하는 구체적 방략을 ‘헤게모니 전략’이라고 부른다. 주지하다시피 헤게모니(hegemony)는 안토니오 그람시의 개념이다. “그람시에게 헤게모니는 정치적 개념이며, 발전된 서구 민주사회에서 자본주의의 억압과 착취에도 불구하고 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지

이와 같은 이유로, 이 논문에서는 제1차 교육과정 전후 우중사에서 발간된 중·고등용 『애국독본』을 중심으로 하여, 전후 애국교육의 구체적 양상과 애국담론 속에 은폐되어 있는 헤게모니 전략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는 1950년대 애국교육의 담론 실천 방식을 이해하는 작업인 동시에, 국가주의 문화교육의 정치성을 사유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2. 중·고등용 『애국독본』의 변증: 애국담론의 지식화와 정당화 장치

전후의 애국담론은 신문이나 잡지와 같은 대중매체만이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광범위한 방식으로 전파되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회적 증거가 교과용 도서이다. 교과서는 교육이념을 대량 전달하는 사회적 미디어이며, 그 효과도 매우 강력하다. 애국교육의 내용과 전략을 고증하는 작업이 당시 교육매체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이 장에서는 중·고등용 『애국독본』의 문헌적 내력을 변증한 후 애국담론이 국가 이데올로기에 의해 입안된 제도적 산물이라는 점을 살필 것이다. 그리고 3, 4장에서 『애국독본』의 헤게모니 전략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로 한다.

『애국독본』은 중등용과 고등용 두 권으로 구성/분책되어 있다. 편찬 주체(“엮은 이”)는 한국교육문화협회이며 발행처는 해방 이후부터 단행

않는지를 해명”하는 이론이다. “지배계층(들)은 단순히 사회를 통치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지적 리더십’을 가지고 사회를 이끌어 가는데, 헤게모니는 바로 이런 상황을 가리키기 위해 그람시가 사용한 개념”이다. “헤게모니가 다수의 합의를 전제로 하긴 해도 갈등 없는 사회나 상황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지배계급이나 집단이 피지배자들과의 타협 내지 승인을 통해 유지되고 또 그렇게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존 스토리, 박만준 옮김, 『대중문화와 문화이론 제7판』, 경문사, 2018, 156-157쪽; 칼 보그, 강문구 옮김, 『다시 그람시에게로』, 한울, 1992, 50-51쪽.

본과 중등학교 교재를 다수 출판해 온 우중사이다.⁷⁾ 두 책의 판형은 모두 148mm×210mm로 신국판에 가까우며, 페이지 분량은 중등용 110쪽, 고등용 120쪽이며 값은 권당 80환이다. 우선 중·고등용 『애국독본』의 목차와 기본 특징을 요약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목차			
중등용		고등용	
제재	저자 표기	제재	저자 표기
서문		서문	
1. 진정한 평화의 길	이 대통령 담화	1. 공동 사회의 인권 보장	
2. 씩씩한 고구려인의 기상		2. 인간의 기본 자유	
3. 신라의 성장과 삼국 통일		3. 공산 치하의 자유	박철
4. 왜국의 피해와 그 구축		4. 북한의 토지개혁과 그 결과	박철
5. 세종 대왕이 국토 확립		5. 북한의 화폐개혁과 그 목적	E.데이.카아
6. 충무공의 정신과 그 활약		6. 소련의 외교 정책	맨
7. 침략의 손길	이선근	7. 노·일 삼팔선 분할의 음모	이선근
8. 민족의 수난과 항거	이선근	8. 6.25 동란의 전야	박태호
9. 삼일 정신의 특징		9. 삼국 통일	손진태
10. 학생과 구국 운동		10. 이 충무공과 임진왜란	천선자
11. 소련의 거짓 정책		11. 삼일 정신의 특징	이선근
12. 6.25 사변의 도발		12. 민족의 수난과 항거	한탁근
13. 인간의 요구와 두 세계		13. 학생의 구국 운동	이선근
14. 한국과 일본의 최근 관계	이 대통령 담화	14. 우리는 왜 싸워야 하나	이선근
15. 평화 제안에 대하여			
※ 중등용과 고등용의 서문 내용, 판형, 책값 동일함.			
※ 제목이 같거나 비슷한 제재가 있으나 실제 내용은 조금씩 차이가 있다(밑줄 친 부분).			

편찬조직인 한국교육문화협회의 성격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가 없었는데, 1954년에 출간된 『도의생활』에서 ‘한국교육문화협회’의 편집위원과 글쓴이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 『도의생활』의 편찬자는 정의성, 곽병화, 방기환, 전경준, 이기백, 박완서, 박기서, 한후수, 최창기, 임인수, 윤

7) 우중사는 제1차 교육과정 검인정 허가를 통과한 출판사로, 1958년 검인정 교과서 편찬/사열시 21종을 출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허강 외, 『한국 편수사 연구 (I): 연구보고서 2000-4』, (재)한국교과서연구재단, 2000, 256쪽.

형모, 이항성(문책)이다. 그리고 저자는 이호성, 최태호 외 53명이며, “컬·그림”은 그림동화 삽화로 유명한 김용환과 백영수, 박성환, 황용자가 그렸다. 저자 중 가장 첫 자리에 놓여 있는 이호성은 문교부 초등교육과 과장이며, 최태호는 문교부 편수국 편수와 과장이다. 편집위원인 방기환은 동화작가이며, 박기서와 최창기는 서울시 중구 학무계장과 장학사, 박완서는 방산국민학교 교장, 윤형모는 남대문국민학교 교장, 전경준은 삼광국민학교 교장, 정의성은 미동국민학교 교장, 임인수는 성주농업고등학교 교장, 이기백은 사학자로 향후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교수를 역임한다. “문교부 추천” 독본의 편집진을 역사학자, 동화작가, 문교부 편수관과 서울시 학무국의 장학사, 그리고 국민학교 교장이 맡고 있다는 점에서 문교행정의 역학을 짐작해 볼 수 있다.⁸⁾

중·고등용 『애국독본』의 「서문」은 동일하다. 두 독본이 학교 급을 고려하되, 일관된 발행 주체의 관점에서 기획·편찬되었다는 사실을 가늠하게 한다. 중등용과 고등용을 비교한 결과, 몇 가지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애국독본』은 역사전기 서사와 논설 텍스트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 전자가 외세의 침략에 맞서 민족의 수난을 극복한 역사전기 서사물이라면, 후자는 (공산주의와 구분되는) 자유민주주의 이데올로기의 체제 우수성을 선전하는 비문학 논설 텍스트이다. 중등용에는 역사전기물이

8) 편집위원 중에서 광병화와 한후수의 직책이나 직급은 확인하지 못했다. 중·고등용 『애국독본』과 초등용 『도의생활』의 편집진이 모두 일치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상당 부분 유사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편찬조직이 ‘한국교육문화협회’로 동일하다는 것. 둘째, 『애국독본』과 『도의생활』이 1954년 같은 해에 발간되었다는 사실이다. 한국교육문화협회, 『도의생활 ⑤』, 문화교육출판사, 1954을 참조할 것. 저자 정보는 다음의 기사와 편수 관련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어린이 문제를 말하는 좌담 학동문화관을 중심으로」, 『경향신문』, 1950.5.29; 「정부 인사」, 『경향신문』, 1950.7.5; 「서울시교육회서 教育者 六氏 표창」, 『경향신문』, 1955.10.5. 허강 외, 「한국 편수사 연구(I): 연구보고서 2000-4」, (재)한국교과서연구재단, 2000, 187쪽.

많고, 고등용에는 논설문이 많다. 초등용 애국독본인 『애국생활』에서 이야기와 삽화를 통해 애국담론을 전파하는 형식을 갖추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그만큼 중·고등용 『애국독본』은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로서의 목적성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제재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축약하고 있다. 중·고등용 지문을 비교해 보면 세 가지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제목과 내용이 전부 같은 경우(「삼일 정신의 특징」), 다음으로 제목은 일치하지만 내용이 일부 축약되거나 다른 경우(「민족의 수난과 항거」, 「학생과 구국 운동」), 마지막으로 제목은 다르지만 내용이 동일한 경우(「충무공의 정신과 그 활약」과 「이 충무공과 임진왜란」)이다. 소박하지만 학교 급(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제재 배열을 다르게 하고 있다. 이는 학습제재와 내용을 ‘체계적인 지식’으로 수용하게 하는 담론 장치가 된다.⁹⁾ 셋째, 학교 급에 따라 삽화, 학습활동, 저자 표기 등을 다르게 구성하고 있다. 중등용에는 ‘삽화’와 ‘익힘 문제’가 제시되어 있으나,¹⁰⁾ 고등용 지문에는 익힘 문제가 없고, 삽화도 「10. 이 충무공과 임진왜란」과 「11. 삼일 정신의 특징」 두 개 텍스트에만 들어가 있다. 저자 표기는 대부분 고등용에만 되어 있다. 이는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한 타이포그래피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9) 중등용에 수록되어 있는 「신라의 성장과 삼국 통일」과 「6·25 사변의 도발」은 고등용에 수록되어 있는 「삼국 통일」과 「6·25 동란의 전야」와 유사한 제재로 보인다. 그러나 「6·25 사변의 도발」과 「6·25 동란의 전야」는 다른 내용이다. 중·고등용의 학습제재 선정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읽기교육의 위계성이 고려되어 있다는 것을 뜻한다.

10) 이는 동일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는 「충무공의 정신과 그 활약」(중등용)과 「이 충무공과 임진왜란」(고등용)을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중등용 교재에서는 ‘익힘 문제’를 제시하고 있으나(“【익힘 문제】 1. 우리가 충무공을 영웅이요 위인으로 모시는 까닭은 어디 있는가? 2. 충무공의 인격에 관하여 이야기하라. 3. 충무공의 생사관은 어떠하였는가? (세 곳에 나온다) 4. 충무공이 제해권을 잡은 결과는 어떠하였는가? 5. 왜란의 폐해는 어떠하였는가?”), 고등용에는 아예 없다. 교과서의 학습활동(익힘 문제)은 ‘학습 내용’을 정당한 지식으로 수용하게 하는 장치이다. 한국교육문화협회 편, 「충무공의 정신과 그 활약」, 『애국독본-중등용』, 우중사, 1955, 27쪽.

더 나아가 『애국독본』의 교육 내용이 제도교육의 체계 속에서 구성된 이데올로기 형식임을 보여주는 교재론적·문헌학적 증례라 하겠다.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애국독본』에 수록된 읽기 제제, 삽화, 익힘 문제 등은 단순히 교재의 학습 내용/활동만이 아니라, 『애국독본』에 수록된 저자의 주장과 학습 내용(지식)을 정당화하고 진리화하는 심리적 기제라는 사실이다. ‘독본(讀本)-류’의 교과용 도서들이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은, 전후의 애국담론이 ‘교육’이라는 제도적 형태를 거쳐 학습자와 대중독자들에게 전수되기 때문이다. 세 가지 측면에서 추가 설명이 가능하다. 논의를 조금 더 밀고 나가 보자.

먼저, 『애국독본』이 “문교부 추천” 교재이며, 학교 급별로 구분(분책)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본래 중등교육은 ‘중학교 6년 과정으로 통합’되어 있었으나, 정부 수립 이후 과도기적 학제(초급 중학교 3년, 고급 중학교 3년)가 정비되었다. 1950년 2월 10일 단선형 교육제도라 명명되는 ‘6, 3, 3, 4제의 학제’가 수립되어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분리되었다(“학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동년 3월 10일에는 이 개정 법률이 공포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¹¹⁾ 아직 체계적인 국가 교육과정(1차 교과과정, 1955년 8월 1일 공포)과 교과서 검인정 시스템이 작동하기 이전이지만, 『애국독본』은 학교 급을 고려하여 교재를 편찬했다. 문교부의 학제에 맞게 위계적으로 중·고등용이 분할/분책되어 있는 것이 그 방증이다. 제도교육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 셈이다.

다음으로, 『애국독본』이 학교 현장에 광범위하게 보급되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중·고등용 『애국독본』은 지금도 도서관 고문서실이나 헌책방에서 어렵지 않게 열람/구매할 수 있는 대중적인 자료이다. 물론 이는 자의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논거가 필요하다. 역설적인 사실이지만, 『애국독본』이 발행된 후 중앙학도호국단장(단장 문교부장관)이 각 시/도의

11) 문교부, 앞의 책, 32-32쪽.

학도호국단 부교재로 『애국독본』을 추천/강매하여 물의를 일으킨 사례를 들 수 있다. 1955년 『애국독본』이 경상북도 지역에서만 50만 권이 강매되었다는 기사(“경북도 당국에서는 전기 책자 약 50만 권을 도내 중등학교 학생과 초등학교 아동에게 일률적으로 강매하고 있”으며, “여시한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 책자는 우중사 발행인 『애국독본』이라고 한다”)는 『애국독본』의 전국적 향유 수치를 짐작하게 한다.¹²⁾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애국독본』에 담긴 애국담론은 자연발생적인 의미 구성물이 아니라, 국가 이데올로기에 입각하여 전파된 제도적 산물이다. 이는 초등용 애국독본인 『애국생활』 3종(1·2학년, 3·4학년, 5·6학년)이 존재하고 있다는 데서 더욱 명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애국을 주제로 한 독본은 초등학교(『애국생활』), 중학교(『애국독본-중등용』), 고등학교(『애국독본-고등용』)의 급에 맞게 각기 편찬되었다. 학습자의 수준과 교육적 위계를 고려하여 만들어졌으며, 그 내용 역시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 애국교육 교재인 『애국생활』은 별도의 논의를 요구하므로, 이 논문에서는 1955년 우중사에서 발행한 『애국독본-중등용』과 『애국독본-고등용』을 중심으로 하여, 전후 애국교육의 체계모니 전략과 문화교육의 정치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3. 애국=타자의 인식: ‘재건’되는 주체와 냉전 이데올로기

구체적 분석에 앞서 ‘전후 문교시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휴전(休戰) 조인 직후 문교부에서 발행한 『문교월보』를 살펴보면—전쟁으로 인해 황폐화된 영토와 사회를 재건하기 위하여—, 온 국민과 교사가 “건국과 애국”의 “사명”¹³⁾을 다할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초

12) 「強賣되는 副讀本 경북도내 육천만환」, 『경향신문』, 1955.7.8.

토화된 조국을 “재건설”하는 데 필요한 교육적 실천 과제는 두 가지이다. 먼저, 구국(救國)의 자세를 잃지 않는 반공교육이다. “전후생활 체제”에서도 “멸공구국”의 정신을 잃지 않는 것이 “애국애족”의 기본 태도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국가의 기본 이념을 재확립하기 위한 사상교육이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자유“民主主義”에 기반한 도의교육이다. 이선근 당시 문교부장관이 재임 3년간 주력한 문교정책의 핵심 과제(“반공이론의 인류사적 정당성의 파악으로써 교육자 자신의 반공신념의 확립”)¹⁴⁾와 일치한다.

전후 문교시책의 핵심은 반공교육이며 사상교육이다. 그것은 자유민주주의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국가관의 확립과 애국심의 고취”¹⁵⁾와 무관하지 않다. 이를 교실 현장에서 실행하는 『애국독본』은 그래서 구체적인 헤게모니 장치가 된다. 그러나 1950년대 애국담론이 적대적 반공주의로 점철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을 ‘애국=반공’의 논리로 환원하는 것은 곤란하다. 중·고등용 『애국독본』의 문교시책 구현 방략(학습제재 선정)과 특징을 분석해 보자. 먼저 「서문」과 「공산치하의 자유」라는 논설이다.

① 이 책은 이러한 냉엄한 현실에 처하여, 통일의 목표로 향하여 험난(險難)한 길을 매진하고 있는 우리들의 정신적 양식으로 엮은 것이다. 이에 먼저 돌이켜 우리의 역사를 더듬어 우리에게 피와 뼈를 물려 준 선조들이 그들이 부딪친 국난을 어떻게 타개하였으며, 어떻게 통일의

13) “共產 계략으로 말미암아 廢墟化된 이 江山 이 거레를 眞心으로 再建設 復興케 하고 祖國統一 自主獨立의 大課業을 完遂케 하는 役軍을 기루는 일을 우리 教育者 以外에 그 누가 能히 遂行했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教育者의 責務와 使命이 至重至大함을 더욱 각성하고 愛國과 愛族의 先驗的인 指導者로서 使命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문교부, 「休戰과 教育者의 사명」, 『문교월보』 7호, 문교부 문교월보편집실, 1953, 3쪽.

14) 중앙대학교 부설 한국교육문제연구소, 『文教史』, 중앙대학교 출판부, 1974, 164쪽.

15) 문교부, 『문교개관』, 대한문교서적주식회사, 1958, 25쪽.

대업을 완수하였으며, 국토를 지켜왔는가, 그리고 그들이 정신과 심적 태도(心的 態度)는 어떠하였는가를 살피기로 하고, 다음으로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를 대조 비교하여 그 본질을 이해하고, 공산치하의 진상을 밝히고, 우리가 몸소 겪은 전란의 쓰라린 경험을 회고 반성하도록 하였다.¹⁶⁾

② 세계 문명국 인민들이 누리는 민주주의적 자유 분위기를 호흡한 이래 더욱 민족적 자유를 갈망하는 열의(熱意)가 컸던 것이다. 그러나 해방된 우리 조국의 반신(半身)인 북한에서는 일제시 이상의 민족적 개인적 자유가 억압(抑壓)당하고 있다는 현실을 상기할 때 통탄(痛歎)아니 할 수 없다. 공산당이 인민에게 민주주의 자유가 확보되었다고 허위선전(虛位宣傳)을 하지만 (중략) 공산주의 정책은 어떠한 수단 방법을 감행하여서라도 인민의 생활수준을 일률(一律)적으로 저하(低下)시키는데 주력(注力)한다.¹⁷⁾

앞서 언급한 것처럼, 중등용과 고등용의 「서문」 내용은 동일하다. 인용문 ①에서 보듯, 국가 재건(“국난”의 “타개”)을 위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반일(反日)’과 ‘반공(反共)’ 정신이다. 일본 제국주의(“일본”)와 북한 공산주의(“소련”, “중공군”, “괴뢰군”) 침략의 역사를 반성적으로 성찰하고, 적대 세력의 실체(“진상”)를 올바르게 이해하게 하는 데 독본 편찬/발간의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적대적 타자(“일제”와 “북한”)를 발명함으로써, 국민의 사상적 단결을 촉구하고자 하는 정치적 수사이다. 일본(“왜”)과 북한(“공산”)이라는 타자의 발명과 재인식은 이항 대립적 분할 행위를 통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도덕적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담론 실천이다. 여기에는 한국 민족과 일본 민족을 분별하는 전략과 자유국가와 공산국가를 분별하는 전략이 동시에 작동한다. 인용문 ②에서 확인할 수 있듯, 전자는 “문명(文明)”한 자유국가로, 후자는 “야만”¹⁸⁾적이고 비

16) 「서문」, 『애국독본-고등용』, 우중사, 1955, 1-2쪽.

17) 「공산치하의 자유」, 앞의 책, 20-27쪽.

18) 「공동 사회의 인권 보장」, 앞의 책, 14쪽.

인간적인 폭력 국가라는 프레임이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선명한 이분법은 단순한 피/아 식별 장치가 아니라, 학습자와 대중독자로 하여금 전후 냉전(冷戰) 이데올로기를 아무런 이의 없이 수용하게 하는 ‘지배적 독서’ 경험을 부여해준다.¹⁹⁾

중·고등용 『애국독본』이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로서의 기능한다는 것은, 독본의 내용 구성이 문교부의 장학방침 1항을 완전하게 반영하며 ‘지배적 독서’ 경험만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²⁰⁾ 전후 애국교육은—『애국독본』을 활용한 국민정신교육은—, 국가 재건(再建)을 위한 문교시책 아래 추동되고 있다. 1958년에 개최된 교육전시회의 『회보』를 보면, 마지막 장에 “6·25 사변으로 인한 각급 학교별 피해상황”²¹⁾과 재건 현황을 제시하고 있다. 국토의 물적 복구와 함께 중요한 것이 국민정신의 재구축이며, 그것이 전후 교육의 핵심 과제였던 셈이다. 휴전 후 대한민국의 중핵 문교시책은 반공교육과 애국교육을 통해(“반공 의식을 함양함으로써 교육을 통하여 국민적 사상 통일을 도모”하기 위해 “애국 애족의 사상 고취”²²⁾),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전파하고 계몽하는 것

19) 주디 자일스와 팀 미들턴은 프랭크 파킨을 인용하면서, 매체가 전달하는 메시지는 세 가지 잠재적인 반응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첫째, 텍스트의 내용을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지배적 독서’, 둘째, 텍스트의 내용 중 일부는 문제를 삼지만 그 텍스트에 잠복하고 있는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는 ‘타협적 독서’이다. 셋째, 텍스트의 의미를 비판적으로 독해하고 지배 이데올로기의 모순에 저항적으로 반응하는 전복적 독서이다.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로서의 교육제도는 대부분 지배적 독서와 타협적 독서만을 경험하도록 설계된다. 주디 자일스·팀 미들턴, 장성희 옮김, 『문화 학습: 실천적 입문』, 동문선, 2003, 104-105쪽.

20) 『애국독본』 발행 전후의 문교부 장학방침을 살펴보면, 1954년 1항은 “반공사상을 함양하고 정신을 무장하여 통일독립에 매진할 것”이며, 1955년 1항은 “반공사상을 투철히 기르고 민주도의 생활을 확립시킴으로써 통일독립의 선봉이 되게 한다”이며, 1956년 1항은 “반공사상을 투철히 기르고 민주도의 생활을 확립케 한다”이다. 「문교부 장학방침」, 『교육전시회회보』, 대한장학사회, 1958, 1쪽.

21) 「문교부 장학방침」, 앞의 책, 38쪽.

22) 해방 이후 10년간의 문교시책을 정리하고 있는 『문교개관』에서는 전후 교육의

이다. 그렇다면 『애국독본』에 반영된 반일/반공의 이데올로기가 확고부동한 지식으로 전수되는 원리는 무엇인가.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해 볼 수 있다.

첫째, 『애국독본』 중·고등용은 논설(연설)문을 통해, 1950년대 국제정치 질서에 입각해 구성된 냉전 이데올로기를 학문적 지식이자 진리로 습득하게 한다. 초등용 애국교재인 『애국생활』이 거의 논설 텍스트를 수록하지 않고, 삽화와 서사를 통해 애국담론을 전파하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²³⁾ 『애국생활』 중에서 가장 고학년 교재에 해당하는 것은 ‘5·6학년’용 교재이다. 이 독본에서는 반일/반공 이데올로기를 (논설적 텍스트가 아니라) 이야기 형식으로 전달하고 있다. 이와 달리, 중·고등용에서는 논설적 텍스트를 균형감 있게 배치함으로써, 패망한 제국주의와 공산주의의 실상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자 한다. 다음의 인용문을 보자.

자유국가와 공산국가는 어느 편이 더 인간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가? 오늘날 세계의 여러 국가는 완전히 두 개의 진영(陣營)으로 나뉘게 되었다. 민주 국가의 진영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스위스,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홀랜드, 필리핀, 중화민국, 대한민국 및 기타 여러 나라들이 있다. 다른 한 진영은 공산국가로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주동국가(主動國家)인 소련을 비롯하여, 그 위성국가(衛星國家)인 폴란드, 헝가리, 알바니아, 동독, 북한, 체코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공산중국 등 여러 나라가 있다. (중략) 공산주의 사회에는 자유와 사랑과 인격의 존중과 같은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회는 자연 그 진보가 느리다. 자극이 없고 개인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없으며, 모든 기본적 자유가 박탈된 곳에서 어떻게 그 사회가 번

기본 방향을 “조국혼”과 “자유 민주 정신”으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로 조국혼과 자유 민주 정신을 한국교육의 기본 방향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였다. (중략) 우리의 조국혼은 민주주의 노선에 준거하여 발휘되어야 할 것이므로 조국혼과 함께 민주 정신이 함양되어야 한다.” 문교부, 『문교개관』, 대한문교서적주식회사, 1958, 22쪽.

23) 문화교육연구회 편, 『애국생활-5·6학년』, 대한출판문화사, 1954을 참조할 것.

영할 수 있겠는가?²⁴⁾

인용문에서 보듯 『애국독본-중등용』의 마지막에 배치되어 있는 논설 텍스트는—, 자유국가와 공산국가의 사회생활, 가정생활, 의식주 문제를 직접 비교하면서 국가사상과 정치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주장이다. 이는 학습자를 설득하는 데 유용한 장르 문법이다. 중등용의 「11. 소련의 거짓 정책」, 「12. 6·25 사변의 도발」, 「13. 인간의 요구와 두 세계」, 「14. 두 세계의 가정 생활 대조」는 모두 자유국가와 공산국가의 체제를 비교하며, 공산국가가 자랑하는 노동정책과 농업정책을 비판하고 있다(“북한 농민들은 무서운 함정에 빠져 신음하고 있”으며 “가난과 주립에서 허덕거리고 있다”는 것).²⁵⁾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비판적 언술의 심층구조에는 공산국가의 비인간성(“가정 중심의 좋은 습관은 파괴되며 개인은 고독하고 불안하게 되는 것”²⁶⁾)과 반민족성(“조국의 흥하고 망함과 민족의 죽고 사는 것은, 그들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²⁷⁾)이 함축되어 있다는 점이다. 중등용과 달리, 고등용에서는 아예 독본의 시작부터 자유국가와 공산국가의 정치·사회체제를 비교하고 있다. 물론 체제의 수도 많고 독해 수준도 고등용이 훨씬 더 높다.

둘째, 『애국독본』은 논설 텍스트만이 아니라, 역사전기 서사를 통해 민족공동체의 경계를 수호하는 반일/반공의 주체 ‘재건’을 주장하고 있다. ‘반일’과 ‘반공’은 제국주의와 공산주의에 종속되지 않는 주체 만들기 전략인 셈이다. 아래의 인용문을 보자.

왜구의 침입은 비록 일본 정부나 막부의 명령에 의한 계획적인 것은 아니었으나 규모가 크고 기간이 길고 피해가 많은 것은 어느 이민족의

24) 「인간의 요구와 두 세계」, 『애국독본-중등용』, 우중사, 1955, 87-91쪽.

25) 「공동 사회의 인권 보장」, 『애국독본-고등용』, 우중사, 1955, 9쪽.

26) 「소련의 거짓 정책」, 『애국독본-중등용』, 우중사, 1955, 64쪽.

27) 「6·25 사변의 도발」, 앞의 책, 85쪽.

침입에도지지 않는 것이어서, 우리 민족사상에서의 가장 큰 일본 민족과의 투쟁사의 한 절(節)인 것이다.²⁸⁾

『애국독본-중등용』은, 외세의 침략과 공산국가의 만행을 연대기(고대-중세-현대)적으로 기술한 후, 그 극복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 씩씩한 고구려인의 기상」과 「3. 신라의 성장과 삼국 통일」, 「4. 왜구의 폐해와 그 구축」, 「5. 세종 대왕의 국토 확립」, 「6. 충무공의 정신과 그 활약」, 그리고 개화계몽기 이후 일제 침략의 역사를 서술하고 있는 「7. 침략의 손길」, 「8. 민족의 수난과 항거」, 「9. 삼일 정신의 특징」, 「10. 학생과 구국운동」, 「15. 한국과 일본의 최근 관계」, 「16. 평화 제안에 대하여」 등과 같은 제재들이다. 역사전기 서사에 나타난 ‘주체 재건’ 모형은 두 가지이다. 먼저, 「침략의 손길」에와 같이—“운양호사건과 강화도조약”, “임오군변과 제물포조약”, “갑신정변과 한성조약” 등 일본의 식민지로 전략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바탕으로—, 역사적 사건과 사실을 통해 외침(外侵)의 교훈을 학습하는 방식이다. 다음으로, ‘이순신 서사’와 같이 영웅의 일대기를 통해 국난을 극복하고 부흥한 선조의 사례를 학습하는 방식이다. 이들 제재는 모두 학습활동(【익힘 문제】 “왜구란 어떤 성질의 것이었으며, 고려를 어떠한 곤란한 경우에 빠뜨렸는가?”)을 통해 지식으로 입안되며 학습자에게 교수학적 영향을 미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자유 진영’과 ‘공산 진영’의 입장은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다. 냉전 체제 하의 애국담론은 공산국가의 실상을 까발리는 지식/진리로 정초되며, 애국하는 주체를 반일/반공하는 주체로 오인하게 만든다. 이는 일본 제국주의와 북한 공산주의의 지배와 회유에서 벗어난 주체 ‘재건’의 문화정치적 통치술이다.

28) 「왜구의 폐해와 그 구축」, 앞의 책, 15쪽.

4. 애국=구국의 마음: ‘희생’하는 주체와 관변 이데올로기

애국담론이 생산한 지식을 정당화하고 진리화하는 장치가 『애국독본』이다. 역사전기 서사와 논설 텍스트의 ‘선정’과 ‘배치’는 단순한 교재 편찬 과정이 아니라, 학습자가 이러한 지식을 거부 없이 수용하게 하는 지배질서의 헤게모니 전략 중 하나이다. 논설적 텍스트는 고등용이 많았으며 수준도 높았다. 그러나 역사전기 서사는 다르다. 단원의 수만 놓고 본다면 중등용의 역사전기 서사는 고등용의 두 배에 이른다. 이 장에서 역사전기 서사물의 담론 효과에 대해 자세하게 다루는 이유이다. 역사전기 서사는 객관적 사실의 전달 효과와 함께 문학적 효과를 창안한다. 그것은 구국(救國)의 열정과 희생이 ‘애국하는 국민(학도)’의 태도임을 스스로 인정하게 만드는 학습 장치이다.

정치와 문화의 헤게모니 전략은 학습자에게 지배질서의 이데올로기를 매끄럽게 입안하는 내용과 형식으로 구성된다. 역사전기 서사와 논설적 텍스트가 그 형식이라면,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그것은 『애국독본』의 학습자와 대중독자를 관변 이데올로기(반공/반일)의 주체로 구성하는 구국의 마음, 즉 희생담론이다. 이는 다시 ‘역사전기 서사’의 희생 드라마와 ‘논설(연설) 텍스트’의 정치적 숭고미로 구분된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역사전기 서사의 희생 드라마이다. 『애국독본』은 전후 사회의 재건 미디어이다. 전시만이 아니라 전후에도 애국담론이 범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전시에 반공주의의 적대성이 노골적으로 서술되거나 공포되는 것과 달리, 전후의 반공교육과 애국교육은 여러 가지 순화/포섭 장치를 가진다. 전후 반공교육 교재인 『반공독본』(1-6권)이 ‘도의교육’ 혹은 도의적 반공주의를 통해 학습자를 ‘순응된 주체’로 육성하고자 했다면,²⁹⁾ 전후 애국교육 교재 『애국독본』은 ‘민족/애족 정

신'을 담고 있는 역사전기 서사와 연설 텍스트를 통해 전후 사회 재건과 종족 보존에 '헌신'하고 '희생'하는 주체를 혼용하고 있다. 역사전기 서사로는 첫 글에 해당하는 「씩씩한 고구려인의 기상」을 보자.

특히 임나(任那)에 근거를 두고 자주 침입해 오는 왜의 세력을 내쫓기 위한 것이었다. 후진 국가인 왜는 우리 나라, 특히 백제를 통해서 높은 대륙문화를 받아들였다. 학문이니, 종교니, 예술이니는 말할 것도 없고, 옷감을 짜고 집을 짓고, 농사를 개량하는 모든 것을 백제에 기술자에게 힘 입었던 것이다. (중략) 신라의 백성을 잡아다 노예로 부려먹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왜의 신라에 대한 침략을 고구려는 묵시할 수가 없었다. 우리 광개토대왕은 왕의 10년에 보병과 기병 5만을 보내어 신라 성에 가득 차 있는 왜병을 몰아내었으며, 쫓겨가는 왜병을 따라 그 근거지인 임나 가라에까지 가서 항복을 받았던 것이다. (중략) 이는 광개토왕의 커다란 업적이었던 것이다.³⁰⁾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고 동아시아 패권을 장악한 광개토대왕의 업적을 기술한 '반일 서사'이다. 익힘 문제("광개토왕을 대왕(大王)이라 부르는 까닭의 내용은 무엇인가?")를 통해 일본("왜병")을 내쫓은 업적을 주입하는 편찬 전략을 택하고 있다. 고대와 중세의 역사전기는 대체로 반일 내러티브의 성격이 보여준다. 고대 삼국의 한 축이었던 신라의 역사를 기술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일본 민족이 고대로부터 이웃 나라의 약함을 틈타"서 "깃곳은 침공을 일삼았"으나, 신라는 당과 연합하여 이를 격파하고 차후 "반도를 완전히 통일"³¹⁾했다고 적고 있다. 고구려인의 기

29) 필자는 전후 초등학교 반공교과서인 『반공독본』1-6권을 발굴하고 분석하면서 "한국전쟁 기간 중 발간된 반공독본이 '전시 구국 정신'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면, 전후의 독본류 반공교재는 '전후 사회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이른바 '도의(道義)적 반공주의'는 '반공'이라는 국가 이데올로기를 '도덕(道德)'의 차원으로 승화시키는 헤게모니 장치이다. 이에 대해서는 박형준, 「전후 『반공독본』의 헤게모니 전략과 사회문화적 함의」, 『한국문학논총』 79집, 한국문학회, 2018, 462쪽을 참조할 것.

30) 「씩씩한 고구려인의 기상」, 앞의 책, 6쪽.

상을 높이 사면서도, 결국 신라가 한반도 통일을 이룩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비록 지금은 외세(미국)의 힘을 빌리고 있으나 대한민국도 언젠가 ‘반도 통일’의 과업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는 정치적 무의식이 담겨 있다. 이는 익힘 문제(“신라의 통일 대업에는 어떠한 장애가 있었으며, 이는 어떻게 극복되었는가?”)를 보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고구려와 신라의 역사전기를 다룬 글 외에도, 『애국독본-중등용』은 전체 제재 중 절반 이상을 역사전기 서사에 할애하고 있다. 단편(短篇) 역사전기라 부를 수 있는 글(들)이 2단원부터 8단원까지 이어져 있으며, 삼국시대부터 일제강점기를 거쳐 6·25 한국전쟁까지 민족 수난의 역사를 아우르고 있다. 『애국독본-고등용』에서 「삼국 통일」과 「이 충무공의 임진왜란」 정도만이 역사서사인 것과는 대비된다. 중등용이 민족성 중심주의에 입각한 역사전기를 통해 다소 우회적으로 반일/반공 이데올로기를 전수하고 있다면, 고등용은 논설 텍스트에 입각하여 보다 직접적이고 논리적으로 반일/반공 이데올로기를 전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교육적 위계성과 수월성을 고려한 전략이다. 역사전기 서사의 양적 차이는 존재하지만, 『애국독본』은 민족의 수난과 극복의 역사를 공통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 논고에서 ‘역사 서사’가 아니라 ‘역사전기 서사’라는 용어를 채택한 것은, 일본(“왜”)과 북방 세력을 물리친 민족영웅 광개토대왕(고구려), 김유신 장군(통일신라), 최영 장군(고려),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조선)의 국난 극복 드라마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중·고등용 『애국독본』에는 다양한 영웅적 캐릭터가 열거되어 있으나, 핵심 제재는 역시 중·고등용에 함께 수록되어 있는 충무공 이순신

31) 이 지문은 중등용과 고등용에 모두 수록되어 있다. “은인자중(隱忍自重)”하고 “외유내강(外柔內剛)하여 당에 대하여 외교적으로는 공손을 드러내면서도, 혹은 당군과 혹은 글안, 말갈의 연합군과 8년간에 대소”를 거쳐 통일을 이룬 내용이다. 『애국독본-고등용』에는 “신라의 성장” 부분이 편집/수정되어 수록되어 있다. 「삼국 통일」은 분단 국가의 ‘통일 과업’의 교훈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고등용에도 함께 수록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신라의 성장과 삼국 통일」, 앞의 책, 7-10쪽

의 역사전기이다. 이 지문은 임진년 전쟁이 발발한 1592년 4월 13일로부터 충무공이 전사한 시기(54세)에 이르기까지 영웅의 일대기를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인용문을 보자.

우리가 충무공을 영웅이요, 위인이라 하는 것은 다만 거북선을 만들고 전쟁에 큰 공을 세워 나라의 위기를 건져 주었다는 그것만이 아니다. 그가 54년의 일생을 보내는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정의를 위해 살았고, 민족을 위해 살았으니, 그 기록이 어느 부분을 생각해 보아도 사람으로서 이처럼 완벽한 인간이 있을 수 있을까 하고 (중략) 사람은 공경에 있을 때에 오히려 그 진가(眞價)를 나타낸다. (중략) 전란이 끝난 후 남은 것은 수많은 인명의 손실과 국토의 황폐였다. 경복궁도 불에 탔으며, 홍문관과 사고(史庫)를 비롯하여 귀중한 도서와 건축과 미술품이 불타 없어지고, 혹은 일본에게 빼앗겼다. (중략) 이 같은 처참한 난리 가운데 오직 빛나는 하나의 얻은 것이 있다면 한인이 이 충무공을 찾았다는 것일 것이다. 우리의 오랜 역사 가운데 때론 가슴이 벅치는 영광과 승리를 찾고, 때로는 눈물이 영기는 수치와 패배를 본다 하지마는 다만 충무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그 하나만 가지고도 민족의 신념을 또 다시 북돋울 수가 있는 것이다.³²⁾

중등용의 【익힘 문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우리가 충무공을 영웅이요 위인으로 모시는 까닭은 어디 있는가?”), 충무공 이순신을 영웅으로 기억하는 것은 “민족을 위해” 자기 자신의 목숨을 초개처럼 희생했기 때문이다. 왕과 간신배들이 이순신을 박해하여 삭탈관직까지 당했으나, 다시 군영으로 돌아가 열두 척의 전선으로 적에게 대승을 거둔 충무공의 희생정신은 민족/애족 서사의 정점을 이룬다. 앤서니 D. 스미스에 따르면, 민족의 실패와 영광은 객관적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그러나 애국교육에서의 민족사 기술은, 객관적인 아카이빙 목적을 초월한다. 교육에서 민족성 중심주의를 채택할 때는 “기록”과 “출처”의 정확성보다,

32) 「충무공의 정신과 그 활약」, 『애국독본-중등용』, 우중사, 1955, 22-26쪽; 「이 충무공과 임진왜란」, 『애국독본-고등용』, 우중사, 78-82쪽.

“시적·교훈적·통합적 목적”³³⁾이 더 중요하다.

이는 민족공동체의 안위를 위협하는 외세에 대한 저항과 숭고한 전사(戰死)로 표현된다. 앤서니 D. 스미스는 ‘민족 보존’과 ‘경계 수호’의 정치적 로망스는 전쟁신화에서 만들어진다고 보았다.³⁴⁾ “반드시 죽기를 기약하면 사는 것이요, 살기를 기약하면 죽을 것이다 라는 비장한 훈시를 남기고 공은 또 다시 일본 수군과 대전하였다“에서 확인할 수 있듯, 자신의 소중한 목숨을 바쳐 국가와 민족을 위기에서 구해낸 이순신 서사는 단순한 인물전기 이상의 담론 효과를 발휘한다. 『애국독본』에 수록된 전쟁신화가 민족의 위기를 극복하는 희생담론으로 점철되어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는 연설 텍스트와의 관계 속에서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자연스럽게, 연설 텍스트의 정치적 숭고미를 검토해 보자. 『애국독본』에는 이순신을 비롯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역사적 영웅들이 기술되어 있다. 일제강점기에 조국을 위해 희생한 애국지사들과 한국전쟁에 참전하여 자기 목숨을 희생한 청년 학도와 군인이 그들이다. 중등용의 서문 격에 해당하는 이승만의 ‘부활절’ 연설문을 보자.

33) “인종적 민족의 상징은 만족할 만한 형식을 제공해 주고, 인종적 민족의 신화는 소통과 동원을 위해서 쉬운 장르로 옮겨진다. 그것들이 후속 세대의 집단적 경험으로부터 등장할 때, 연대기, 서사시, 민요로 만들어지고 편집된다. (중략) 혼합되고 정교화된 신화는 인종적 민족의 공동체에 전체적인 의미의 틀과 공동체의 경험을 ‘알게 하고’ 그 경험의 ‘정수’를 정의해 주는 신화원동기를 제공해 준다. 신화원동기가 없다면 하나의 집단은 그 자신을 스스로에게 또는 다른 집단에게 정의할 수 없으며, 집단적 행동을 고무하거나 계도할 수 없다. (중략) 이렇게 풍부한 신화의 목적은 과학적 ‘객관성’이 아니고, 사회적 연대와 사회적인 자기 정의를 단단히 묶기 위한 감동적이며 미학적인 결합이다.” 앤서니 D. 스미스, 이재석 옮김, 『민족의 인종적 기원』, 그린비, 2018, 66-68쪽.

34) 1950년대가 ‘민족주의의 극성기’라고 표현한 이는 에릭 홉스 봄이지만, 민족성에 대한 정치적 관심이 외부 위협과 내부 부식에 대한 ‘방어적 저항’에서 출발한다고 말한 연구자는 앤서니 D. 스미스이다. 앤서니 D. 스미스, 앞의 책, 116쪽.

이제 회고하여 보건데, 우리의 조국도 “예수”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무덤 속에 장례 지낸 지 사십 년 동안을 갇혀 있다가, 다시 부활한 것입니다. (중략) 이제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를 억압하던 악마의 압력을 박차 버리고 마침내 새로 살아난 것입니다. 이 부활한 조국의 운명을 쌍견에 짊어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곧 제군과 같은 청년들입니다. (중략) 그 동안 공산 괴로군이 조국을 침범함 뒤로, 많은 청년들이 부상을 당하고, 피를 흘렸는데, 그들의 이 거룩한 자기 희생의 정신이 현재 우리 조국의 운명을 지니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중략) 이 거룩한 부활제를 맞이해서 진정한 평화가 세계 만방에 실현되기를 바라는 동시에 공산주의를 우리 강토로부터 축출하지 아니하고는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없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입니다.³⁵⁾

이 대통령의 부활절 담화 연설문이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청년들의 그것과 동일시함으로써, 국가를 위한 청년들의 “자기 희생”을 숭고한 대의의 결정으로 추모하며 고양하고 있다. 애척(哀戚)의 마음은 의미 있는 것이지만, 이와 같은 국민 희생의례는 ‘정치(세속)종교’³⁶⁾의 형태와 다르지 않다. 왜냐하면 조선 학도들(일제강점기 3·1 운동, 60 만세운동, 광주 학생 사건, 8·15 해방 이후의 “반탁 학생” 운동, 6·25 동란 중의 “의용 학도”)은, 조국을 일본 제국주의와 북한 공산주의의 위협으로부터 구출(“청년 학도들은 결사 투쟁하여 저 적색 마술의 신탁에서 조국을 구출”)한 의로운 존재로 숭상되고 있기 때문이다.³⁷⁾ 당연히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이들의 죽음은 정중하게 추모되어야 하지만, 이와 같은 제재를 애국교육 교재에 수록한 것은 정치적이다. 왜냐하면,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된 조국 재건의 주체를 “청년 학도들”로 호명하는 관변 이데올로기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세 가지 측면에서 입증 가능하다. 첫째, 『애국독본』이 “문교부 추천”교재라는 점이다. 둘째, 중등용 독본에 ‘이승

35) 이승만, 「진정한 평화의 길—부활절 메시지 4286년 이 대통령」, 『애국독본-중등용』, 우중사, 1955, 1-3쪽.

36) 조지 L. 모스, 임지현·김지혜 옮김, 『대중의 국민화』, 소나무, 2008, 30쪽.

37) 『학생의 구국 운동』, 『애국독본-고등용』, 우중사, 1955, 101-107쪽

만 대통령 담화문'이 수미상관 구조로 배치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진정한 평화의 길」, 「평화 제안에 대하여」가 그것으로, 지배 권력의 담론 공표 방식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셋째, 이선근 문교부 장관(1954년)의 글이 중등용에 2편, 고등용에 4편 수록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고등용 제재의 경우 1/4에 육박한다. 문교부 장관인 이선근은 1954년 4월 21일부터 1956년 6월 7일까지 재임했다. 그의 임기 내내 문교시책 제1항으로 '반공 민주교육'을 추진했으며, 『애국독본』에는 이러한 장학방침이 노골적으로 재현되어 있다.

이와 같이 『애국독본』의 관변적 구호("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조국을 구하고 세계를 지켜나가, 내일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자는 청년 학도들이다"³⁸⁾)는, 역사전기 서사와 통합하며 학습자 개인을 매끄럽게 '희생하는 주체'로 호출/구성한다. 그러므로 나라를 빼앗긴 기득권 세력의 무능함에 화가 나고 이권이 생기더라도, 민족정신의 양양을 위한 희생담론 앞에서는 지배질서를 전복하는 비판(저항)적 독서가 불가능하다. 『애국독본』의 독서가 관변 이데올로기에 대한 '타협적 독서'에 그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³⁹⁾ 이는 학습자를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주체가 아니라, 지배 이데올로기에 순응하고 순종하는 '애국적 주체'로 만들기 위한 체계모니 전략이며, 이는 순수한 교육 활동이 아니라 정교한 문화정치적인 양상이다.

38) 「학생의 구국 운동」, 『애국독본-중등용』, 우중사, 1955, 62쪽.

39) 1950년대 애국교육의 효과를 양적·질적 연구로 규명할 방법이 없다는 게 이 연구의 한계이다. 다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독본(讀本)의 구성 방식이 학습자의 '독서 경험(반응)'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은 짐작해 볼 수 있다. 책이 전달하는 메시지에 대한 학습자의 경험은 세 가지 양상을 보여준다. 지배적 독서, 타협적 독서, 전복적 독서가 그것이다. 『애국독본』의 메시지는 냉전 이데올로기를 의심 없이 수용하는 '지배적 독서' 경험을 부여한다. 그리고 독본에서 종종 논리적 모순이나 문제점을 발견해도 더 이상의 비판 없이 그 내용을 수용하게 한다. 관변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희생담론'은 학습자의 읽기를 '타협적인 수준'에 머무르게 한다. 주디 자일스·팀 미들턴, 앞의 책, 104쪽.

5. 독본의 문화정치: 애국하는 마음, 순종하는 국민

지금까지, 한국전쟁 직후에 발간된 중·고등용 『애국독본』을 실증하고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라는 관점에서 분석해 보았다. 이를 통해, 중등학교 애국교육 교재에 반영되어 있는 관변 이데올로기와 헤게모니 전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애국독본』은 중등용과 고등용 두 권으로 구성/분책되어 있으며 한국교육문화협회가 편찬했다. 전후(戰後) 사회의 재건 과정에서 ‘애국교육’은 관변 이데올로기의 전수 수단이 되었지만, 지금까지의 독본 연구나 문화교육(사) 연구에서는 이를 충실하게 다루지 못했다.

1953년 7월 휴전 조약이 체결되면서 종족간의 살육전이 멈추었다. 그러나 이미 사회적 기반시설이 파괴되고 국민 삶의 터전은 참혹한 폐허로 변해 있었다. 국가 재건을 위해 물적 시설의 복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나 인간적 가치와 도덕은 타락할 대로 타락해 버렸다. 국민의 사상을 통일하고 양양하는 반공교육, 도의교육, 애국교육이 사회 재건의 시급한 과제로 부상했으며, 이는 고스란히 전후 문교시책의 근본 정책이 되었다. 애국심의 이름으로 민족주의를 소환하고, 제도교육을 통해 애국담론이 전파됐다. 이와 같은 담론 실천은 말할 것도 없이, 학습자를 새로운 주체(애국적 주체)로 ‘재건’하는 과정/방식이다.

전후 애국교육의 형식은 매우 다양하다. 학도호국단과 같이 중등학교를 준-군대화하는 방식을 통해 애국담론의 정훈적 가치를 정식화하기도 했지만, 『반공독본』, 『도의생활』, 『애국독본』, 『애국생활』 등과 같은 사상교육 매체를 통해 학습자를 ‘애국하는 주체’로 육성하기도 했다. 독본은 초·중·고등학교의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애국교육의 (부)교재로 활용되었다. 이것은 “문교부 추천” 교재로 제도화된 교육 형식을 갖추고 있었다. 『반공독본』의 경우 제1차 교육과정 이후에도 ‘문교부 인정’ 교재(인정 교과서)로 계속 발행되었다. 독본에 수록된 지문, 삽화, 익힘 문제

는 교재의 학습 내용과 활동이기도 하지만, 애국담론을 일련의 지식으로 정당화하고 진리화하는 사회심리적 기제였다.

『애국독본』이 학습자에게 ‘애국하는 마음’을 기입하기 위해 사용한 헤게모니 전략은 두 가지이다. 첫째, 냉전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학습자를 새로운 주체(국민)로 ‘재건’하는 전략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냉전체제의 애국담론은 일본 제국주의와 북한 공산주의를 타자로 발명하였으며, 이는 지배 이데올로기를 비판 없이 수용하게 하는 ‘지배적 독서’를 통해 이루어진다. 둘째, 『애국독본』은 관변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학습자를 ‘희생’하는 주체로 육성하는 전략을 사용했다. 애국/애족 정신을 담고 있는 역사전기 서사와 논설 텍스트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는 주체를 창안한다. 국민의 희생과 헌신을 ‘정치(세속)종교’로 고양하는 헤게모니 전략은 비판(저항)적 독서를 불가능하게 만들며 관변 이데올로기와 ‘타협’하게 한다. 그렇다면, 독본의 발간과 유통은 순수한 교육 활동에 머물지 않고 문화정치의 한 수단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중·고등용 『애국독본』은 지배 이데올로기에 순종하는 ‘애국적 주체’를 재건하고 육성하기 위해 고안된 전후 사회의 헤게모니 장치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다양한 사상과 가치를 획일화하는 폐쇄적 민족주의와 반공적 애국주의의 환영을 직시하고, 보다 더 민주적인 사회 담론과 공동체 문화를 정초하는 학술적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첨언하자면, 본고에서는 본격적으로 다루지 못했으나 초등용 애국교육 교재 『애국생활』 3종(1·2학년, 3·4학년, 5·6학년)이 존재하고 있다. 중·고등용 『애국독본』과 연장선상에 놓여 있는 애국독본이다. 『애국생활』에 대한 실증적 고찰과 연구는 전혀 이루어진 바 없어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1. 기본 텍스트

- 한국교육문화협회, 『(문교부 추천) 애국독본—중등용』, 우중사, 1955.
한국교육문화협회, 『(문교부 추천) 애국독본—고등용』, 우중사, 1955.

2. 참고 논저

- 김봉국, 「한국전쟁기 애국담론과 감성정치」, 『감성연구』 11집,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15, 53-102쪽.
대한장학사회, 『교육전시회화보』, 대한장학사회, 1958.
문교부, 『문교개관』, 대한문교서적주식회사, 1958.
박용찬, 「한국전쟁 전후, 현대시의 국어교과서 정전화 과정」, 『한국 현대시의 정전과 매체』, 소명출판, 2011.
박형준, 「한국 문학교육의 제도화 과정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박형준 · 민병욱, 「1950년대 반공교과서의 서술전략 연구—『반공독본』과 『애국독본』을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33집,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9, 269-287쪽.
박형준, 「전후 『반공독본』의 헤게모니 전략과 사회문화적 함의」, 『한국문학논총』 79집, 한국문학회, 2018, 457-484쪽.
이순욱, 「한국전쟁기 전시독본의 형성 기반과 논리」, 『한국문학논총』 58집, 한국문학회, 2011, 423-452쪽.
_____, 「한국전쟁기 문학독본과 문학교육—한국전쟁기 독본 연구 2」, 『한국문학논총』 66집, 한국문학회, 2014, 361-391쪽.
이종국, 『한국의 교과서 변천사』,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8.
중앙대학교 부설 한국교육문제연구소, 『文敎史』, 중앙대학교 출판부,

1974.

허강 외, 「한국 편수사 연구(I): 연구보고서 2000-4」, (재)한국교과서연구재단, 2000.

루이 알튀세르, 김동수 옮김, 「이데올로기와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 『아미앵에서의 주장』, 솔, 2000.

앤서니 D. 스미스, 이재석 옮김, 『민족의 인종적 기원』, 그린비, 2018.

조지 L. 모스, 임지현·김지혜 옮김, 『대중의 국민화』, 소나무, 2008.

존 스토리, 박만준 옮김, 『대중문화와 문화이론 제7판』, 경문사, 2018.

주디 자일스·팀 미들턴, 장성희 옮김, 『문화 학습: 실천적 입문』, 동문선, 2003.

칼 보그, 강문구 옮김, 『다시 그람시에게로』, 한울, 1992.

<Abstract>

A study on the hegemony strategy and cultural politics of 『Patriot textbooks』 after Korean War

Park, Hyunj-Jun*

This paper analyzes the composition and contents of 『Patriot textbooks』 published after the Korean War. It is also a study on the hegemony strategy of patriotic education textbooks in secondary schools. 『Patriot textbooks』, which published by the Korea Education & Culture Association, is divided into secondary and high school. In the process of rebuilding the postwar society, ‘patriotic education’ became a means of conveying national ideology. 『Patriot textbooks-secondary』 and 『Patriot textbooks-high school』 analyzed in this paper are not just a textbook. It is an ideological device that makes an individual a ‘patriotic being’.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literature, there are two reasons why 『Patriot textbooks』 could function as an ideological device. first, 『Patriot textbooks』 was divided according to school level. second, 『Patriot textbooks』 were widespread in school. At the core of post-war policy measures is the establishment of a national view based on liberal democratic ideology and the promotion of patriotism. The specific hegemony device which realizes this measure in the field is 『Patriot textbooks』. There are two reasons for this. First, learners are nurtured as subjects of social reconstruction

* Busan University Foreign Studies.

based on the Cold War ideology. Patriotic discourse in the Cold War recognizes Japanese imperialism and North Korean communism as the other. This creates a 'dominant reading experience' that allows the dominant ideology to be accepted without any objection. Second, based on the government's ideology, it trains learners as victims. Historical biographical narratives and editorial texts contained in the 『Patriot textbooks』 make learners the subjects of 'dedication' and 'sacrifice' to post-war social reconstruction. This creates a 'compromising reading experience' that has lost resistive reading. 『Patriot textbooks』 is an ideological state apparatus. In other words, it is a hegemony strategy to make 'the subject of patriotism' conform to the ruling ideology. This is not a pure educational activity but a means of thorough cultural device.

Key Words : 『Patriot textbooks』, hegemony strategy, Patriot education, government's ideology, subjects of 'sacrifice'

■ 논문접수 : 2019년 11월 25일

■ 심사완료 : 2019년 12월 8일

■ 게재확정 : 2019년 12월 10일